

Coram Deo
in front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우. 0523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27
T. 02-428-1885 F. 02-429-7845
www.paichai.hs.kr

 배재고등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 paichaiofficial

PAI CHAI HIGH SCHOOL



사랑을 배우고,
섬김의 리더로 성장하는 배재인

기독교 신앙심에 바탕을 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독교 시민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섬김의 지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PAI CHAI HIGH SCHOOL





학교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장 이효준입니다.

1885년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이 두 명의 학생을 데리고 출발한 배재학당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날 10만이 넘는 배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배재고등학교는 ‘코람 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경영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는 미래 교육의 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최우선시하던 과거의 교육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삶의 과정 자체가
진정한 승리이며 선(善)의 가치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의 단순 축적을 넘어서서 각자의 향기를 찾아가는 삶, 취향이 있는 멋스러운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남과 다름’에 있습니다.

획일적인 진학 지도 중심의 입시 교육이 아닌, 학생들 개개인의 꿈과 다양한 끼를 구현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키워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랄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도록
배재의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고등학교 교장 **이 효 준**

코람 데오 Coram Deo(라틴어)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 ‘코람(Coram)’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Deus)’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 신학 용어다. 사도 바울과 칼빈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기도 하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Paichai,
the future of Korea!*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배재인

5천만이 아닌 80억의 무대를 꿈꾸며 미래 사회를 개척할 능력과 자질,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코람 데오(Coram Deo) 배재 - One More Paichai -

학부모 기도모임, 교직원 아침 예배, 학생 채플, 클래스 미션, 아침 영어 성경 방송

배재에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학부모 기도 모임과, 매일 아침 교직원 예배에서,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키워낸 귀하고 값진 배재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찾아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방송반(PBC)과 영어 성경 방송반(YMCA)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아침 인성 교육 방송 'One More 배재의 아침입니다'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건강한 성품 교육을 위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정신이 구현되는 경험을 이끌어 냅니다. 채플 활동 및 클래스 미션을 통해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고 섬김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하며 배재인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평화공동체의 일원으로 세계에 헌신할 일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One More Paichai

2024년도 표어인 원 모어 파이차이는 “한 번 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래 공학 교육을 주도하는 배재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 청소년 공학 리더 프로그램, 발명품 경진 활동

제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는 창의 융합 교육, AI·코딩을 통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 향상, 목업 활동과 과정 중심의 교육 기획의 제공을 목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학 리더 활동(AI자율 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을 비롯, 지역 아동 센터를 방문하여 주니어 공학 교실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체험 교실에서는 탄소 중립의 실현과 국산 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교내 발명품 경진 활동에서는 학생 지식 재산권 취득 권리 신청을 통해 미래 지식 재산권 확보하고 미래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발명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를 꿈꾸는 배재

독서 토론회, 협성회, 철인과 발메(철학·인문학·과학·발명·메이커 융합과정)

배재인의 ‘철학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은 연중 내내 진행되는 교사와 학생들의 독서 토론회를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토론하는 경험을 통해 경청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신장하며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통해 대입 논술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인 1조의 팀이 사전에 토론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준비서를 작성하여 토론에 참여하는 협성회는 경청하는 개방적 태도와 팀을 이뤄 협업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 얻은 창의성과 상상력은 발명과 혁신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문학적 측면을 고려한 발명의 추구는 기술과 인간성의 융합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철학, 인문학, 과학, 발명, 메이커를 연결하는 융합 수업을 통해 인문학의 관점을 발명과 결합시킴으로써 창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술과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촉진하는 학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배재

자기관리형생활평점제, 학생회·대위원회

자율적인 학생들을 배양하고 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학교는 자율적이고 창의적 학생이 자랄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관리 및 조절 능력 향상 경험을 제공하며 생활 안전의 기준 및 실질적인 성찰 과정의 경험을 상담 지도와 절차로 제공하는 자기관리형생활평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 제안 아이디어 및 학생회 공약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토대 위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회와 대위원회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자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향이 있는 삶의 멋스러움을 배우는 배재

시각 문화 공모전, 학교장배 체육활동, 학교 스포츠 클럽

학교는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고 자신만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취향을 찾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각 문화 공모전은 시각 문화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문화적 안목과 교양을 갖춘 배재의 인재를 발굴합니다. 학교장배 체육활동은 학생회가 주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을 선정하여 학급 대항전으로 진행되며 아버지 축구단(파파축구단)과 교사 축구, 농구팀과의 친선 경기도 진행합니다. 1교시 수업 시작 전 정기적인 아침 운동을(축구, 농구, 배드민턴, 풋살 등) 실시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은 자율적인 학교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스포츠맨십을 배우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공동체적 가치를 키우는 배재

농생명 교실, 농촌 선교 봉사활동

지속 가능 발전(ESD)은 환경, 사회, 경제적 고려가 균형을 이루는 미래에 대한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환경, 사회, 경제적 전반에서 상호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생명 교실에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로 인한 식량 위기를 인식하고 창조 질서 보존 활동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도시의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공동체 형성, 로컬 푸드 등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도시농업의 적정기술 활용,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 공간 디자인 등 창의 융합 학문을 지향하게 됩니다. 농촌 선교 봉사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경기도 이천) 교회 목회자들과 협력하고 나눔과 섬김의 진정한 봉사 활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배재

국제교류단, 자매학교 교류

여름 방학 동안 해외 명문 대학 및 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국제교류단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있으며 세계 시민으로서 안목과 통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애교심과 애국심을 고양합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 화총 국제학교, 일본 오오타니 고등학교와 자매학교 상호 방문 및 수업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경험하며 문화적 이해와 관용성,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리더십을 체득하고 폭넓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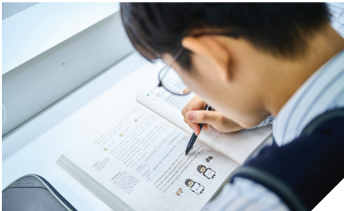


인재 양성의 산실! 우남학사

학생들의 가능성을 실현시켜주는 최적의 교육환경

-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는 최적의 학습공간 **개인 학습실**
- 함께 공부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협력학습의 장 **세미나실, 북카페, 인강실**
 - 체력증진을 위한 **실내농구장**
 - 개인 기도와 목상을 위한 **개인기도실**

시 간	일 과
06:30 ~ 06:50	기상 및 세면
06:50 ~ 07:30	점호, 식사
07:30 ~ 07:40	등교준비
07:40 ~	등교
08:00 ~ 17:30	학교수업(방과 후 수업 없을 시 기숙사 학습, 16:40~17:30)
17:30 ~ 18:45	저녁식사
18:45 ~ 19:50	자기주도학습
19:50 ~ 20:20	휴식시간
20:20 ~ 22:00	자기주도학습
22:00 ~ 22:20	휴식시간
22:20 ~ 23:20	자기주도학습
23:20 ~ 24:00	취침점호 및 세면



진로, 진학의 새로운 기준을 창출해나가는 배재

프리칼리지, 모의 창업캠프,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전공별 4개 반(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치한)을 운영하여 대학의 다양한 전형에 맞게 학생들을 집중관리, 지도하는 프리칼리지 프로그램은 진학을 위한 최적의 길을 안내합니다. 대학 교수들을 초청하여 전공 교양 과목 수준의 심층 강의를 진행하고 현장의 전문 직업인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합니다. 코딩, 인공지능 교실, 마케팅 체험, 로봇 만들기, 고전·인문 아카데미 등 지자체와 대학, 기업의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며 하나의 모의 회사를 계획해보는 모의 창업 캠프에서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양한 창업 활동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진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및 진학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공교육 신뢰를 제고하고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자녀의 성공적인 진로 구축을 지원합니다.

연간 약 4억 7천여만 원의 장학금

신입생 지원유형	지급기준 (입학 후 중간고사 성적 등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선정)	장학금 내용	지급 유지기준
일반전형 지원자	수석	등록금 전액	성적 5%이내 유지
	상위 3%이내	연간 200만원	성적 10%이내 유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공동)	성적 상관 없이 전원 지급	연간 60만원(하이트진로장학금)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유지
	상위 10%이내	학업장려금 연간 100만원 추가지급 (하이트진로장학금)	성적 30%이내 유지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유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성적 상관 없이 전원 지급	· 기숙사비 100% 지원 · 급식비 전액 지원(조식, 석식 포함) · 방과 후 학교 수업 보조비 지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원 규정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유지

※ 장학금 내용은 학교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 진학 결과



최근 3년간 대입 결과 비교

구분	2021대입			2022대입			2023대입		
대학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서울대	11	9	20	8	12	20	6	14	20
연세대	6	7	13	10	14	24	13	14	27
고려대	42	21	63	28	14	42	23	21	44
의치한약수	4	7	11	11	22	33	10	28	38
특목대	10	1	11	8	3	11	11	3	14
소계	73	45	118	65	65	130	63	870	143

2024학년도 대입 결과

대학	수시	정시	합계
의예	3	23	26
한의예	-	5	5
약학	-	6	6
서울대학교	11	12	23
연세대학교	8	24	32
고려대학교	24	12	36
성균관대학교	12	22	34
서강대학교	8	8	16
한양대학교	11	16	27
중앙대학교	7	44	51
소계	38	90	128

※ 연세대(미래), 고려대(세종) 캠퍼스 제외, 특목대에 교대 포함
※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공대 포함/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제외

대학	수시	정시	합계
경희대학교	4	13	17
한국외대	1	6	7
시립대학교	2	7	9
건국대학교	10	12	22
동국대학교	1	15	16
홍익대학교	4	11	15
국민대학교	0	13	13
송실대학교	1	5	6
세종대학교	2	11	13
소계	25	93	118

배재, 나의 고향



권주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2023년 졸업, 138기

후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배재고등학교 138기 졸업생 권주원입니다.
어떤 후배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제 입시 결과가 좋았기에 힘들었던 기억이 결과론적으로 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 고등학교에 대한 기억에 있어 입시 결과는 거대한 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배재에서의 삶, 즉 과정으로서의 기억의 축은 입시 결과의 축 이상으로 견고하다는 사실ைய요.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듯 저는 배재를 저의 고향으로 정의했습니다. 배재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의 수업 질의응답 과정에서 키워나간 교과에 관한 지식도 이에 포함되지만 저는 배재에서 배운 삶의 자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저에게 배재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을 묻는다면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친구들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배재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다른 개성들을 지녔지만 그 안에 타인에 대한 기본적 배려라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과 3년간 같이 울고 웃으면서 삶에 있어 배려와 봉사의 자세를 그리고 우정의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배재에서의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조차 친구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했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사회적 성장의 거름으로 기억됩니다. 그 힘들었던 입시의 순간조차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서로 고민, 생각들을 나누었던 기억으로 덧붙여지니 말입니다.
또한 저는 배재의 선생님들로부터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혹자는 선생님을 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 교과지식은 정말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배재에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선생님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신한불란(信汗不亂)의 자세, 2학년 담임 선생님의 근자필성(動者必成), 그리고 3학년 담임 선생님께 배울 수 있었던 친근한 카리스마는 모두 저의 자산이 되었고 이러한 가르침은 저의 가치관인 물령망동(勿令妄動 靜重如山)의 자세로 귀결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태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배재는 그 시작이자 잊지 말아야 할 고향입니다.

배재에서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자!



정재훈
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2023년 졸업, 138기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배재고등학교에서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선 배재에는 다양하고 탄탄한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내신 공부에 치진 저에게 비교과 활동은 부담보다는 힐링이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및 탐구 활동을 통해 제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명확해진 목표 의식은 교과 공부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매년 새로운 비교과 활동을 열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교내 비교과 활동의 장이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많은 활동들을 참여하고 성장한 바를 생활기록부에 남겨 꿈을 향한 제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으며 이는 수시 전형으로 카이스트에 진학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성균관대 공학계열 모두 최종 합격했으나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카이스트로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시절, 힘들 때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진학부장님과 상담을 통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학생인 제가 해야 하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열정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공유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제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배재에서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으며 행복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김유진
서울대학교 의예과

2024년 졸업, 139기

나의 성장의 원동력, 배재고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고등학교 139기 졸업생 김유진입니다. 처음 배재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였던 저는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선생님들께 가르침을 받으며 3년을 보내는 동안, 내적인 성장은 물론 학업적으로도 정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정시로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에 배재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비교과 활동들, 즉, 프리칼리지, 다양한 교내 대회와 자율 활동들에 참여해서 활동한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학기 말에는 생활기록부 글자 수를 거의 1/4로 줄여야 했고, 봉사 활동은 3년 동안 학교 봉사만 350시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분명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렇게 치열하게 학교 생활을 한 것이 저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성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자율학습입니다. 1학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자율학습을 시행했지만, 2학년 때부터는 대면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서 꾸준히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자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은 3학년 때까지 이어졌고 학기 중과 방학 중에도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학교에 나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능 마지막 2주 전까지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며 공부에 매진한 결과 성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으며 학습한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2학년 때는 학교 수업을 통해 학습의 기초를 단단히 쌓으며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고, 3학년 때는 수업 중 EBS 수능 특강 학습을 통해 연계출제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신 시험문제가 수능 문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들이 많아, 내신 대비 학습을 하며 정시 대비도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2학년 때는 내신 대비를 위해 수학, 탐구 수능 기출을 여러 번 회독함으로써 3학년 때 기출 분석을 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배재에서 정말 치열하게 성장했습니다.

후배 여러분, 배재고등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쌓으며 마음껏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배재



김태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2024년 졸업, 139기

안녕하세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24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저는 제가 배재고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과연 제가 고려대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배재고등학교에서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나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고교 3년을 부단히 노력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힘든 시간도 존재했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학교생활을 즐겁고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바로 배재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정기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는 교내의 여러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이었는데, 배재는 비교과 활동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크게 느끼는 저 같은 학생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협성회에서는 ‘기본 소독’과 ‘한국의 원전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자율탐구 프로젝트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과제 연구 수업에서 ‘학생 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탐구하기도 하고 이

방향성을 학생회 활동에서 직접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제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록해 주셨고,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 고려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배재에서 채워나간 알찬 생활기록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배재는 미래의 꿈을 설계하며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해준 장이었습니다. 또한 배재에서 받은 사랑은 저를 크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1학년 때 저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심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예민했던 저에게 친구들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셨고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학교에 적응해 나가면서 심리적으로 버거웠던 학교 생활은 어느새 즐겁고 활기찬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재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게 되었습니다. 배재에서 배운 사랑의 정신이 흐려지려 할 때마다 배재에서의 생활을 반추하며 저의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혹은 예비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배재는 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대입, 진로의 길에서부터 크게는 제 삶의 목표와 방향성에 이르기까지, 배재는 제 삶에 새로운 길을 놓아 주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될 배재의 후배 여러분 모두 배재에서 멋진 길을 설계하게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배재고등학교를 추천합니다.



이서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2024년 졸업, 139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진학한 139회 졸업생 이서진입니다. 저는 배재고등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3년을 보내며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후배분들,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입학을 꿈꾸는 미래의 후배분들을 위해 배재고등학교의 장점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배재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활동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학년과 2학년 때 자율주행 자동차 활동에 참여하여 코딩 공부도 하고 대회에도 참여했으며, 3학년 때는 메이커 스페이스실에서 직접 카트를 제작하여 주행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활동들로 저의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갔고, 이런 활동들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으로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께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재고등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의료 계통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휴먼, 멘츠 등 의학 동아리가 존재하고, 공대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STACK, ESC 등의 다양한 공학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Plan, Act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아리에 들어간 다음 단장이나 부단장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STACK의 부단장으로 활동했으며 여러 실험을 계획하여 부원 친구들과 재미있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재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 모의고사 기출 및 EBS 수능 특강을 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신 대비를 하며 자연스럽게 수능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은 내신이 수능 유형과 사뭇 달라 수시와 정시를 모두 동시에 대비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배재고등학교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처럼 배재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일 뿐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개개인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가 바로 배재고등학교임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배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분들도, 배재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정인 미래의 후배분들도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 보내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Enter to grow Love

Depart to become the servant leader!

동문인터뷰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현 국회의원

92회 졸업

누군가 제게 인생에 있어 꼭 한 번쯤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인지, 물어올 때마다 저는 주저 없이 ‘배재학당에서 보낸 시절’이라고 대답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들과 靑雲의 높은 꿈을 키우며 올바른 인생의 길을 함께 고민했던 배재인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재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배재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제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배재인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습니다. 역시 배재학당에서 배우고 자란 대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나가있는 동문들의 활약상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배재가 되었음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온 배재의 성원과 배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우리 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배재를 이끌어 나갈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

98회 졸업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학교인 배재학당 출신의 배재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좋은 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이다”라는 말과 같이 유년 시절 배재에서의 배움은 제 인생에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을 지금도 제 삶의 기준으로 늘 가슴속에 새기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하 장병들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과 함께 대한민국 영공과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온 가르침과 배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배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배재 후배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배재는 영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배재 후배들을 응원하며 희망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김대중
(전) 장학재단 이사

93회 졸업

배재는 1885년 아펜젤러 목사님이 건립하신 대한민국 신교육의 요람입니다.

또한 배재는 고종황제께서 하사하신 교명으로 배양영재(培養英才)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당입니다.

배재에 입학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욕위대자(欲爲大子) 당위인역(當爲人役), 코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라’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자리하고 있는 교훈으로서 자기의 희생으로 덕을 쌓고 나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큰 인물이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같은 큰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재에는 타 학교에 없는 럭비 정기전(배양전)이 있습니다. 양정고와의 럭비 정기전을 통해 배재는 하나가 됐고 단결된 힘은 선후배 간 두터운 정으로 승화되어 배재가 뭉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배재가 없는 곳이 없고, 배재교가가 멀리서 들릴 때면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저의 학창 시절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통해 인성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학입시가 최우선이 되어버린 요즘, 남을 섬기려는 배재의 전통이 희석되는 거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덕체(智德體)가 균형을 이루도록 교육하는 배재가 되길 바라며 배재 10만 동문들은 후배들이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배재 건학 정신



Christianity

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배재고등학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26-28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를 양성합니다.

Coram Deo

in front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코람 데오란 라틴어로 ‘Coram’ 즉 ‘앞에’라는 뜻과
‘Deo’ 즉 ‘하나님’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배재고등학교는 모든 것에 공정하고 투명한
“Protestant”의 정신으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교육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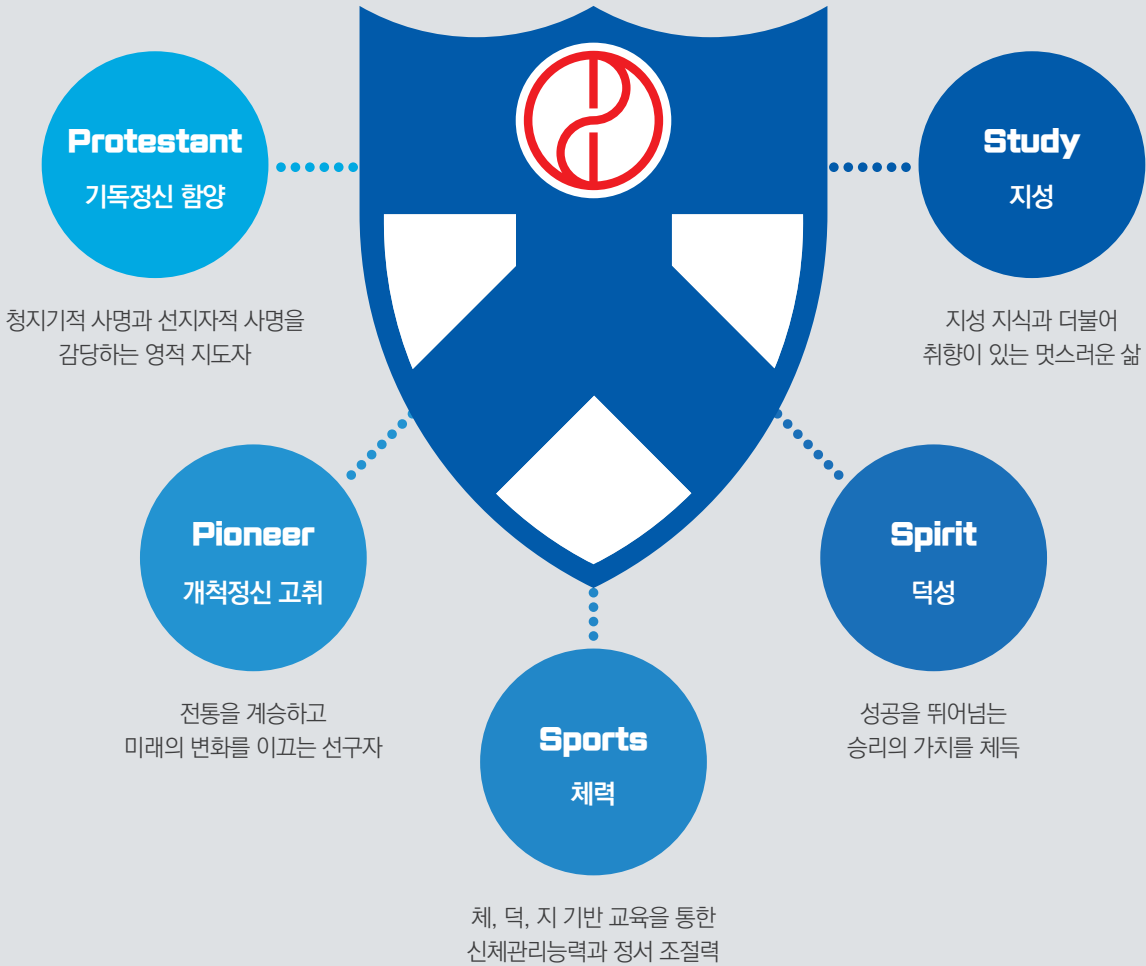


Paichai, The Future of Korea

5천만이 아닌 80억의 무대를 꿈꾸며,
미래사회를 개척할 능력과 자질,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2P, 3S

The Driving Force of Future Development



배재를 지원하는 10만 동문

배재가 그대의 자랑이듯이, 그대가 배재의 자랑입니다.



01. 애국선열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서재필 협성회·독립협회 지도자
윤치호 만민공동회 대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지청천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관

02. 독립운동 시대 학자 및 예술가

김복진 조소예술가
김소월 민족시인
김말봉·박영희 카프(KAPF) 작가·시인
나도향 소설가
박용철 시문학파 시인
주시경 국어학자

03. 정계 및 관계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
김석수 전 국무총리
이재형 전 국회의장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정덕구 니어 재단 이사장

주정환 전 지방병무청장

황익승 전 칠레 대사

04. 군인

김진호 전 합참의장
김현석 전 육사교장
노승환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서상국 전 육군 소장(육군 교육사령부)
이서영 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이양구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장경석 전 육군 중장
정상화 전 공군 참모 총장
홍재성 전 해병대부사령관

05. 정계 및 법조계

김진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이근규 전 제천시장
한창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철 춘천지법 부장판사

06. 학계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학 총장
김병수 전 연세대총장
김 욱 배재대학교 총장
김정길 전 배화여대 총장
김학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학부장
박강수 전 배재대학교 총장
정순훈 몽골 후레대학교 총장
정중현 전 서울예술대 부총장
조보현 배재학당 이사장
황문찬 전 감리교 신학원 이사장
황방남 전 배재학당, 배화학원 이사장

07. 의학계

김경희 상계동 슈바이처
김동수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장
류봉하 전 경희대 한방 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
문창모 한국의 슈바이처(전 국회의원)
방동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사
오궁선 세브란스의대 2대 학장(한국인 최초)
임승길 전 연세대 의대 학장

임영진 전 경희의료원 의료원장
최병재 전 연세대 치대 학장

08. 경제계

강동환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 대표이사
김근수 (주)후성회장
김상현 전 네이버 대표
김지환 동양섬유 회장
남영선 전 한화 화약부문 및 재무실 대표이사
박동선 전 미릉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맥주 회장
박찬범 아시아나항공 고문
서병민 풍산 회장비서실 사장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서유석 미래메셋 법스자산운용대표
설 범 대한방직 회장
신철호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회장
신현정 한솔제지 사장
윤영노 (주)자명 대표
이순동 국제 로타리클럽 총재

이인찬 SK플래닛 대표이사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대표이사
정인재 LG디스플레이 최고혁신 책임자
허재철 대원강업 회장

09. 언론계

구영희 전 MBC미술센터 사장
김종배 시사평론가
윤균일 SBS 제작이사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10. 종교계

김낙한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
김성수 대한성공회 대주교
김철환 전 루터교 총회장
원성웅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최세웅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독
태동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11. 문화계

강찬모 화가
구창모·권인하·신유 가수
구호서 소설가
김필주 분당 심포니 오케스트라 설립자 및 감독
노주현·박호산·신일룡·임호·조인성·천호진 영화배우
박헌수 영화감독
백건우·한동일 피아니스트
정승일 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표재순 연출가 및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12. 체육계

김영기 한국농구연맹 총재
김종렬 전 대한체육회장
송종국·조원하·차두리 축구선수
이영민 야구선수
임재현 농구선수
최중준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이름 : 가나다순